

약사공론 > 뉴스 > 약사회

의약품 제조 산업기사 등 전문자격 신설서 제외

약사회, 제약협회·식약처 만나 요구 사항 전달...고용노동부 입장 수용

 입력 2018-01-09
 12:00:27

논란이 됐던 의약품·바이오의약품 제조 기사 등 전문자격 신설이 국가기술자격 개편방안에서 빠진 것으로 확인됐다.

9일 약사회 관계자 등에 따르면 최근 고용노동부는 제4차 산업혁명 대비 국가기술자격 개편방안 중 의약품 제조·산업기사, 바이오의약품 제조·산업기사 등 4개 자격증을 논의에서 제외하기로 결정했다.

이는 지난해 3월부터 '제4차 산업혁명 대비 국가기술자격 개편방안(관계부처 협동)'에 따라 자격개편분과위원회를 운영하면서 3D프린터, 빅데이터의료, 바이오 등 새로운 노동 시장 환경에 필요한 기술인력 양성을 위한 '자격개편(안)'을 마련한데 따른 것이다.

자격개편안에 포함된 17개 자격증 중 논란이 됐던 것은 △바이오의약품제조기사 △바이오의약품제조산업기사 △의약품제조기사 △의약품제조산업기사 등 4종으로, 제약·바이오업계 인력을 위한 산업계 요구에 따라 추가됐다.

해당 사실이 약사사회에 알려지면서 약사회는 반대입장을 밝히며 철회할 것을 요구했다.

자격을 신설할 경우 제조관리자 자격 부여에 따른 약사법 개정 우려는 물론 업무 구분의 모호성이나 직능간의 갈등 야기 등이 문제라는 입장이었다.

약사회는 충분한 인력수급이 이뤄지고 있으며, 신설과 관련한 관련 단체인 약사회의 의견을 확인하지 않은 점도 문제 삼았다.

이에 따라 지난해 12월 진행된 제조·수출입업체 관리약사 연수교육에서는 제약분야 기술자격 신설 저지를 위한 서명 동참 운동 등을 진행하기도 했다.

약사회는 한국제약바이오협회와의 논의는 물론 식약처에도 의견을 개진했고, 식약처 차원에서 보류 의견을 정해 고용노동부에 이를 전달했다.

전문자격 신설 논란은 이번 자격개편 논의에서 제외 돼 결국 일단락됐다.

허성규 skheo85@hanmail.net

※ 이 기사와 사진의 저작권은 약사공론에 있습니다.
 약사공론 : (02)581-1301~4